보이스피싱 십계명 및 대응 사례 [상세]

1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10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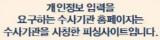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10계명!>

- ①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를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 의심하세요
- ② 전화·문자로 대출 권유 받는 경우 무대응 또는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하세요
- ③ 대출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 요구시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세요
- ④ 고금리 대출 먼저 받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 저금리 대출이 가능 하다는 말은 보이스피싱입니다
- [5] **납치·협박 전화**를 받는 경우 자녀 안전부터 확인하세요
- [6] 채용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등 요구시 보이스피싱입니다
- 기 가족 등 사칭 금전 요구시 먼저 본인인지 확인하세요
- 图 출처 불명 파일·이메일·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하세요
- ⑨ 금감원 팝업창 뜨고 금융거래정보 입력 요구시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 10 보이스피싱 피해발생시 즉시 신고 후 피해금 환급 신청으로 추가 피해를 방지하세요

1.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를 요구하면 보이스피싱 의심

〈대응 요령〉







- □ <u>정부기관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를 입력</u>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재산을 **사기이용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하여 피해 발생
 - ① '18.7월 E씨(34세, 직장인)는 서울OO지검 수사관을 사칭한 사기범으로 부터 "국제마약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내일 검찰로 출두하라"고 요구 하였고 E씨가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자 "내 말을 못 믿겠으면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알려 줄테니 영장을 확인하라"며 피해자를 기망
 - ② 사기범이 불러주는 인터넷사이트에서 자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본인에게 발부된 (가짜) 영장을 확인한 E씨는 사기범의 말을 신뢰하고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사기범이 자금이체를 요구하며 알려준 금감원 F팀장의 계좌로 전 재산 O억원을 이체
 - ③ 자금출처를 확인한 후 곧 환급될 것이라는 말과 달리 며칠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자 E씨는 금감원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임을 알아 차리고 지급정지 하였으나 이미 전액 현금으로 인출

2. 전화·문자로 대출 권유받는 경우 무대응 또는 금융회사 여부 확인

〈대응 요령〉

문자나 전화로 대출을 권유받는 경우 대응을 하지 않거나 실제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 금융회사 상담원의 명의로 전화나 문자로 대출을 권유시 실제 금융회사인지 여부 확인 없이 개인정보를 알려주거나 자금을 이체하여 피해 발생
 - ① A모씨(60대)은 주택담보대출을 저리로 대환대출해준다는 금융회사를 사칭한 유선통화를 받고 실제 금융회사인지 여부 확인 없이 상담원의 지시에 따라 본인의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 번호 등을 알려줌
 - ② 계좌를 확인해보니 예금액이 모두 불상의 계좌로 이체된 후였으며, 전화가 온 금융회사 콜센터에 확인을 해보니 해당 금융회사는 위와 같은 영업을 하는 경우는 없다는 답변을 받음

3. 대출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 요구시 보이스피싱 의심

〈대응 요령〉

대출을 명목으로 대출진행비 등 금전을 선입금할 것을 요구할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합니다.



- □ 금융회사를 사칭한 사기범은 유선으로 <u>피해자의 신용등급이</u> <u>낮지만 대출이 가능</u>하다며 <u>대출진행비 및 선납이자를 요구</u>하였고 피해자가 송금하자 이를 편취하고 잠적
 - ① '19년 OO캐피탈을 사칭한 사기범은 신용이 낮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신용등급으로는 대출이 어려우나 보증보험료 및 선납이자** 65만원을 입금하면 2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피해자를 기망
 - ② 피해자는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에 65만원을 입금하였으며 사기범은 이를 확인 후 금전을 타 계좌에 이체하고 잠적

4. 고금리 대출 먼저 받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은 보이스피싱

〈내응 요령〉

저금리 대출을 명목으로 특정 앱 설치를 요구하거나 돈을 요구하는 경우 100% 대출사기입니다.



- □ <u>저금리로 대환대출</u>이 가능하다고 속이고 <u>기존 대출에 대한</u> **상환자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하여 피해 발생
 - ① '18.9월 A씨(52세, 자영업)는 성명불상자로부터 "OO저축은행 박OO 대리입니다. 고객님은 低利로 대환대출 가능하십니다. **대출전용 애플리케이션 (앱)을 설치**하여 모바일로 신청"하라는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고 메시지에 첨부된 링크를 눌러 OO저축은행 앱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
 - ② 잠시후 박OO 대리라며 전화한 대출상담원이 "기존 대출상환을 위해 알려주는 계좌로 O천만원을 입금하라"고 하자 대출사기가 의심스러워진 A씨는 확인을 위해 일단 전화를 끊고 해당 저축은행으로 전화하였으나 방금 통화한 박OO이 다시 전화를 받자 이에 속아 기존 대출상환 자금을 알려준 계좌로 송금함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5. 납치 · 협박을 받는 경우 자녀 안전부터 확인

〈대응 요령〉

가족이나 친지가 협박받으면서 금전을 요구할 경우에는 일단 의심하고 전화로 확인하세요.



- □ 사기범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u>자녀가 사채빚을 갚지 않아</u> <u>잡아두고 있으며 금전을 입금</u>하지 않을 경우 자녀의 장기를 적출하겠다고 협박
 - ① '19.5월 A씨(70대 여성)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딸이 친구의 대출빚을 보증 섰는데 이를 갚지 않아 **딸을 잡아두고 있다는 협박**을 받음
 - ② 사기범은 **빚을 갚지 않으면 딸을 살해하여 장기를 적출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수화기 너머에서는 '엄마, 살려줘'라는 울먹거리는 소리까지 들려옴
 - ③ A씨는 수중에 있던 금전을 가지고 사기범이 지정된 장소까지 택시를 타고 가려고 했으나 택시기사의 기지로 경찰에 신고되어 범인을 검거

6. 채용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요구시 보이스피싱

〈내응 요령〉

사원증을 만들기 위해서 금융정보나 접근매체를 요구하는 경우는 100% 사기이니 응하지 않아야 돼

합격통보를 받은 회사에서 사원증을 만들기 위해서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고 하던데요



- □ 취업준비생인 피해자에게 모 기업의 인사담당자를 사칭하는 사기범으로부터 전화가 와 급여계좌 개설 및 보안출입증 발급에 필요하다면서 체크카드 및 공인인증서, OTP 등을 요구
 - ① '17년 구직자 B씨는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백화점 의류 납품관리 모집 납품관리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합격통보를 받음
 - ② 업체직원은 B씨에게 **사원증을 만들어야 한다고 체크카드를 요구**했고 B씨는 퀵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체크카드를 업체직원에게 전달
 - ③ 업체직원은 회사공금이 B씨의 계좌로 잘못 입금되었으니 이를 인출하고 거래내역을 삭제해주겠다고 말하고 B씨의 계좌에서 금전을 인출
 - ④ 업체직원은 사기범이었고 회사공금이라는 돈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B씨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범죄에 연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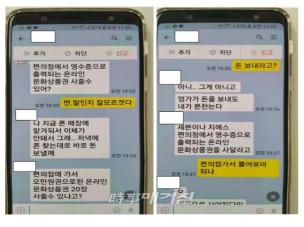
7. 가족 등 사칭 금전요구시 먼저 본인 확인

〈내응 요령〉

가족이나 친지 등 지인이 갑자기 금전을 요구할 경우에는 일단 의심하고 전화로 확인하세요.



- □ 전화·메신저로 가족 등 지인을 사칭하면서 비밀번호, 인증서 오류 등을 명목으로 타인 계좌로 급히 자금을 이체할 것을 유도
 - ① 사기범이 **카카오톡**으로 **지인(부모, 친인척, 친구, 직장동료 등)을 사칭** 하여 "급히 거래처에 결제를 해야 하는데 **카드 비밀번호 오류**로 보내 지지 않는다"면서 **타인 계좌로 90만원 이체 요청***
 - * 지연인출제도를 회피하기 위해 100만원 미만의 금액을 요청하거나 100만원 미만으로 쪼개서 여러 번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 사례 다수
 - ② 사기범은 피해자 F에게 이체 내역을 사진찍어 보내달라고 하는 한편, 피해자가 전화하겠다고 하자 **휴대폰이 고장**나서 **전화 수·발신은 안되고** 카카오톡만 된다고 속여 **전화 확인을 회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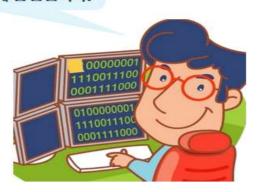




8. 출처 불명 파일·이메일·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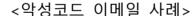
〈내응 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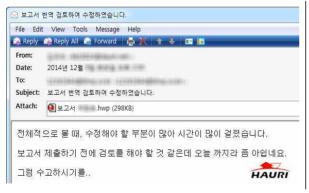
수상한 문자나 이메일 등은 열어보지 않아야 하며 파일을 실행하는 순간 악성코드에 감염됩니다.



〈피해 사례〉

□ 문서나 이미지 등을 가장한 파일, 정부기관이나 거래처 등을 사칭한 이메일 또는 문자를 통해 사용자의 PC나 휴대폰 등에 악성코드를 설치하는 사례 증가







- ① '19.3월, 디자인 분야에 재직하는 피해자는 유명 작가 명의로 저작권을 위반했다는 항의 메일과 원본이미지 파일이라는 첨부파일을 송부받음
- ② **첨부파일을 클릭**한 순간 피해자 **PC의 파일들은 랜섬웨어에 의하여 모두** 해제할 수 없도록 암호화되었으며 암호화를 해제하려면 비트코인을 입금하라는 요구를 받음

9. 금감원 팝업창 뜨고 금융거래정보 입력 요구시 100% 보이스피싱 (대응 요령)





〈피해 사례〉

- □ 포털이나 금융회사를 사칭한 피싱사이트에서 <u>금융감독원을</u> 사칭한 팝업을 띄워 금융정보·개인정보 및 금전 탈취
 - ① '14년 D씨는 지방세를 납부하기 위해 은행에 접속했는데 '금융감독원 사기예방 계좌등록 서비스'라는 팝업창이 뜸
 - ② D씨는 팝업창의 지시에 따라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 번호를 입력하였으며 D씨 계좌에서 사기범에게 2,100만원이 출금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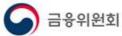
10. 보이스피싱 피해발생시 즉시 신고후 피해금 환급 신청

□ 자금을 송금한 후 보이스피싱이라고 의심되면 즉시 <u>금융회사로</u> 연락하여, 자금이 이체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신청하여야 함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2011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112 1332